

혼자가 좋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박범수 감독
‘싱글 인 서울’

짧은 가을을 뒤춤으로 넘기는 계절. 차가움이 제법 매서워졌다. 달랑 남은 달력 1장은 하릴없이 지나가버린 시간을 체크당한 것 마냥 산하기 짝이 없다. 이런 계절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설렘과 송년모임 등의 북적임마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영화 기상으로 보면, 따뜻함이 절실해지는 계절에는 로코(로맨틱 코미디)가 제격이다. 로코에 어울리는 배우의 캐릭터는 순도 높은 허당미. 맥 라이언, 르네 켈워거, 앤디 맥도웰, 줄리아 로버츠, 수잔 서랜든 등이 보여주는 유쾌한 매력이기도 하다.

한국 영화에도 엄정화, 라미란, 김하늘, 임수정, 이미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배우 임수정은 좀 특이하다. 배우치고는 마스크 안에 희·비극이 없어 보인다. 도회적 평범함으로 심플한 이미지인데 로코를 통해 탈탈한 친근함이 입체화되는 듯한 배우, 다시 말해 로코가 어울리는 배우라 할 수 있다. 영화 ‘싱글 인 서울’에서는 출판사 편집장 역할을 하면서 그 캐릭터를 더욱 굳힌 듯하다.

출판사 편집자는 좋은 필자를 선정하고 조율해서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드는 좋은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문인들, 학자들, 인쇄소, 서점과의 국한된 활동범위로 사회를 잘 모른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 사회의 두뇌이자 사회구성원의 심장을 파고드는 책 만드는 일에서만큼은 사회적 통찰력이 뛰어나야 한다.

‘싱글이 답이다’와 ‘혼자인 사람은 없다’고 살아왔던 두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의 작가와 편집자로 만난 현진(배우 임수정)과 영호(배우 이동욱). 생활 방식도 가치관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은 책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유능한 편집장 현진은 혼자가 싫다. 늘 썸을 타고 싶어하고 그린 라이트를 착각해댄다.

대비되는 인물로 눈물감사 영호는 혼자가 좋다. 야경이



영화 ‘싱글 인 서울’.

다씨지플러스 제공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창 앞에서 드립 커피를 마시고 LP를 들으며 SNS에 혼자가 좋은 소회를 담는다. 누구보다 까칠한 것도 전형적인 MZ세대의 모습이다.

이 둘은 조사 하나에도 가치관이 달라 신경전을 벌인다. 혼자 ‘라도’ 좋다고 혼자 ‘라사’ 좋다고의 차이 등등. 이들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대사 하나하나가 톡톡 튀는 말맛이 있었고 깊었다.

관람중에도 시나리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영호의 눈술 강의 중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이 있다. 필자가 글쓰기 수업시간에 늘 강조했던 터라 확 와 닿았다.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골랐다는 음악들도 영화의 몰입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는 무엇일까? “싱글에게 썸은 불륜이다.”라고까지 싱글 예찬을 하는 영호 앞에 베일에 싸였던 바르셀로나의 흥 작가 등장으로 모든 것들이 꼬여 버린다. 꼬인 ‘관계’를 푸는 것이 정답인데 쉽지 않아서 출판기획마저 파도가 난다. ‘결자해지(結者解之)’... , 놓친 것을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전환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그런 후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책이 나오는 일련의 과정이 영화의 볼거리로 등장한다. 교정과 색보정, 제본의 신은 출판학을 전공한 필자에게는 남다른 시선이지만 관객에게도 재미있는 소재이기를 희망해본다.

광주 동구청에서 들은 얘기로는 동구 거주민의 60% 이상이 1인 가구라 한다. 바야흐로 우리는 ‘싱글’ 이 이상하지 않다는 데 다수가 공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영화 ‘싱글 인 서울’은 일상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객석에 스며들면 좋을 듯하다. (2013년 .11월 29일 개봉)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진정한 동행

취재수첩

박소영
취재 1부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소비심리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를 촉진해 내수경기 활력을 도모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동행축제’가 4일 개막한다. 중기부는 28일간 열리는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할 전국 우수 중소·소상공인 100개사를 선정했지만, 광주지역 참여기업은 단 2곳으로, 지역소의 문제가 불거졌다.

동행축제의 지역소외는 광주뿐만이 아니다. 최종 선정된 100개사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100개 기업은 △서울 19개사 △경기 19개사 △인천 3개사 △강원 5개사 △충북 1개사 △충남 2개사 △대구 4개사 △울산 1개사 △대전 4개사 △광주 2개사 △전남 13개사 △전북 5개사 △부산 3개사 △경북 3개사 △제주 2개사다. 세종은 없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은 전체 기업 중 41%(41개사)에 달했지만, 지역기업은 전남(13개사)을 제외하고 5개사를 넘은 지역은 없었다. 심지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광역시조차 최대 4개사를 넘기지 못했다.

이마저도 역대 동행축제보다는 수도권

편중 현상이 완화된 편이다. 역대 동행축제 선정기업 비율을 보면 수도권 소재 기업은 △제1회 145개사(48%) △제2회 31개사(51%) △제3회 155개사(52%) △제4회 159개사(53%)로, 평균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광주·전남지역 기업은 △제1회 29개사(10%) △제2회 8개사(8%) △제3회 20개사(7%) △제4회 25개사(8%) 등에 불과했다.

지난 10월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역기업의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로 ‘사업 참여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져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신청 기간 등 지역별 홍보가 부족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서는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역 판촉행사를 기획하는 등 지역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지역소외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의 막이 올랐다. 아쉬운 점은 많으나 역대 동행축제 참여 기업만 2만여개에 달하고, 매출 또한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진행될 동행축제에서는 지역간 균형있게 참여기업을 선정해 사업 취지에 맞는 진정한 ‘동행’이 되길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일(현지시각) 필리핀 민다나오섬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부투안의 산토스 병원 환자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있다. 이날 밤 규모 7.6의 강진과 심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져 주민들이 대피하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뉴스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 전 편 전연가독 리플라이너 쇼퍼석 (키블석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포티마켓 충장로점 062-222-7733

주차장 안내

본관(1관) 주차장

본관(2관) 주차장

본관(3관) 주차장

본관(4관) 주차장

본관(5관) 주차장

본관(6관) 주차장

본관(7관) 주차장

본관(8관) 주차장

본관(9관) 주차장

전용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첫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제휴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09:00-오후20:30까지

※ 3시간 무료 주차이후,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도림합수파라이스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차 가능(세탁, 동이, 단말기 충전에 한함)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1관	서울의 봄 / 더 마블스
2관	싱글 인 서울
3관	싱글 인 서울 / 더 마블스
4관	서울의 봄 / 스노우 폭스: 설매개가 될 거야!
5관	서울의 봄
6관	서울의 봄
7관	프레디의 피자가게
8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30일
9관	괴물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료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